제1차 정책토론회 사전질의사항 후보자 답변(기호 3번 강명희)

1. 사전질의사항 답변(교원)	1
2. 사전질의사항 답변(직원)	5
3. 사전질의사항 답변(학생)	9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 교 수 -

2021. 11. 25

총장임용후보자 기호 3번 강명희

[질문 1]

2022년 3월에 제출될 혁신사업안 내용 중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말해주십시오.

[답변]

①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본인의 특성화 정책은 전공의 자유학문 구조의 복원입니다. 교육부가 권고하는 학사구조 개편은 학과(전공) 간의 물리적 통폐합이 아니라, 미래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과 간, 전공 간 교과과정을 공유하여 융합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전공구조는 인문대,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공대, Art&Design대로 복원할 것이며, 전공 간에 교과과정의 공유로 첨단 신산업분야 5개의 융합전공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② 신입생 모집단위 - 2022. 5 이전에 대교협에 제출(2023년 신입생 선발에 적용)

<표1> 모집단위 및 선발방법

대학	모집 단위		선발방법		
			수시	정시	
				단과대	통합
인문대	10개 전공		단과대 통합 선발	단과대 통합 선발	4개 단과대 입학 정원의 10%
사회과학대	12개 전공		단과대 통합 선발	단과대 통합 선발	
	유아교육학과		학과 선발	학과 선발	
자연과학대	수리· 통계학부	수학전공	학부 선발	학부 선발	
		정보통계학전공			
	화학·식품 영양학부	화학전공	학부 선발	학부 선발	
		식품영양학전공			
생활체육학과		학과 선발	학과 선발		
공과대	5개 전공		단과대 통합 선발	단과대 통합 선발	
Art & Design대	회화학부	서양화전공	학부 선발	학부 선발	
		동양화전공			
	디자인 학부	실내디자인	학부 선발	학부 선발	
		시각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약학대	약학과		학과 선발	학과 선발	

③ 정원축소

교육부 발표(2021. 5. 20)에 따르면 대학은 2022년 2월 제출할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 규모화(정원축소)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대학이 구조개혁 또는 정원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주도해서 권역별 재학생 유지충원을 지표구성 및 산정방식 등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적정 규모화를 정하게 됩니다. 이후 교육부는 2022년 말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대학의 정원 축소 적정화를 평가하게 되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2022년 2월 제출 예정인 자율혁신계획 수립 안내를 2021년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축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학생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전공별 2022년 재학생 유지충원율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질문 2]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교원의 신분안정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을 밝혀주시시오.

[답변]

제가 발표한 우리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은 전공의 통폐합이 아니라 전공의 복원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신기술 사회를 맞아 다양한 전공은 오히려 우리 대학의 강점이 됩니다. 전공 간 교과과정의 공유를 통해 첨단 사회가 요구하는 신산업분야의 융합전공을 설치하여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운영하기에 좋은 교육자원이 됩니다.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느라 기존의 학과를 무리하게 통폐합하거나 많은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교과과정의 공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전공의 설치에 급변하는 산업분야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사구조 혁신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부 전공이 존폐위기로 내몰리면서 교수들이 겪는 상실감과 위기감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질문 3]

우리 대학의 학문 계열 간 교원확보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소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시오.

[답변]

학문 계열 간 교원확보율에 있어서 불균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부가 교수초빙 계획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합니다. 제가 교무처장직을 수행하던 2016년 교수초빙에 앞서 단과대학별 교원확보율을 비교해보니 불균형이 심각하였습니다. 당시 자

연대와 공대의 교원확보율은 48%로, 다른 학문 계열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에 저는 교수초빙에 있어서 불균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저는 향후 교수충원계획을 세울 때 학문 계열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자율전공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간과 실습 기자재 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세요.

[질문 5]

단과대학별 혹은 전공별 등록금에 차이가 있다. 제1전공과 제2전공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금의 차이는 학생들의 전공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한 등록금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질문 4와 질문 5]

① 제2전공 쏠림으로 인한 강의실 문제, 실습 기자재 부족 문제

○ 본인의 특성화발전계획은 인문대,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공과대, Art&Design대, 약대로 학문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신입생 모집단위도 단과대학별로 구분해서 단과대학 내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게 합니다. 단과대학 내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전공별 정원을 110%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 제1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45학점으로 상향하고, 복수전공(부전공)제를 운영함으로써 쏠림현상이 개선되고 수용인원 초과에 따른 강의실 부족, 실습 기자재 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의 비대면 수업운영에 대한 대학 재량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강의 특성 및 강의규모를 고려해서 교양, 전공에서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 학생이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면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규정화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② 제2전공 자율 선택에 따른 등록금 형평성 문제

○ 제가 구상하는 특성화계획이 실행된다면, 복수전공(부전공)으로 운영되므로 제2전공 자율선택에 따른 등록금 형평성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만, 현재 체제로는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 직 원 -

2021. 11. 25

총장임용후보자 기호 3번 강명희

먼저 이번 교육부 3주기 대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잦은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직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원의 공개질의에서 담긴 문제의식에 절대 공감합니다. 행정조직 체계상의 업무적 위계관계를 떠나 직원을 동반자로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리더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질입니다. 저는 임기 동안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행정에 있어서 직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유성’을 보장하며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는 대학이 평가를 대비해서 손쉽게 정량평가 지표관리를 하느라 교수충원율을 마구 높이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그 부담을 떠넘겼다는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학 재정을 악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서울 시내 타 대학들이 매년 물가 인상과 연동해서 등록금을 올릴 때에도 당시 우리 대학은 십여 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동결하면서 우리 대학과 타 대학 간에 커다란 등록금 차이가 발생했고, 대학의 재정 적자를 적립금으로 메우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당시 경영자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1> 임금 보전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현실적으로 등록금 동결은 불가피한 실정에서 임금 보전 방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임금 보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① 근무시간 조정

- 업무의 책무성은 강화하면서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18시 퇴근을 17시로 조정)

② 겨울방학 기간 중 근무시간 조정

- 겨울방학 중 근무시간 조정. 구체적인 시간 조정은 단체협약에서 조율

다만 부서의 업무 특성과 강도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간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승진, 전보 등 인사정책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

제가 공약하는 인사정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 직급 승진 시 총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필수연한과 평가기준에 충족하면 자동 승급을 적용
- 기능직은 최고 직급이 6등급에 그치는데, 5등급의 직급을 신설해서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특히, 기능직은 직급체계가 ‘등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급’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원 간의 차별을 없애겠음)
- 업무량이 과한 특정 부서에서는 승진 가산점 부여 또는 2~3년 단위 순환 보직 체계 마련
- 직제규정에 보장된 7개 처의 ‘부처장’ 직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가며 순차적으로 참이사 이상의 직원으로 뚝으로써 승진 적체 해소에 기여
 - 실무 행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부서에 대해 ‘처장직’을 직원이 담당

<질문3> 복지정책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

복지제도의 효용성과 가치에 동의하며, 제가 공약하는 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주기로 교직원의 건강검진비 제공
- 동호회 운영비 지원
- 직원연수제도 실시

이 외에도 생일 휴일 등은 특히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부서 직원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직원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질문4>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답변]

업무량의 증가와 직원 수의 부족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와 개선에 대한 요구에 공감합니다. 더구나 지난 수년간 대학평가를 이유로 손쉬운 정량지표

관리로 대응을 하느라 교원을 충원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의 악화를 직원에게 전가하면서 신규채용을 미룬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교직원 모두가 몸담고 있어야 할 직장이며, 재정 고갈에 대한 염려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에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52 시간제의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급적 야근/주말 근무를 최대한 통제
- 직원 신규 충원계획에 대하여 직원단체와 의논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질문5> 법인-대학직원 간 급여, 복지, 인사 등 ‘동등한 대우’ 관련 질의

[답변]

저는 재단과 대학 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이 정규직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서 업무뿐만 아니라 대학평가 대비, 각종 사업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준비 등으로 야근 및 주말 근무까지 하느라 극도의 중압감이 일년내내 지속되면서 건강까지 해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대학에서 직원을 차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업무를 대학 직원들이 떠안게 되면서 근로 여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 재단으로 차출된 직원은 급여, 복지, 인사 등에서 대학의 직원과 다르게 상향하여 대우한다는 것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재단과 대학 간 직원의 대우는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 학생 -

2021. 11. 25

총장임용후보자 기호 3번 강명희

[질문 1] 교내 시설 문제

노후된 가온(기숙사), 교내 학생 자치 시설 부족, 신설 전공 실습실 및 강의실 부족 문제, 기존 강의실 책걸상 노후화 등 학교 시설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며 이에 사용할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답변]

본인은 우리 대학 교비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다루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공간 부족이나 노후시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학 적립금을 사용한다면 재정은 가파르게 고갈되어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① 기숙사 노후 문제

가온 1(기숙사)은 2022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실내 거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수도 문제 근본적 해결, 바닥재 교체, 도배, 화장실, 고장 난 가전제품 교체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교비, 재단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기숙사 운영에 사용될 재정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올리고, 학부모 및 동문 등을 대상으로 기숙사 개선 목적 기금 모으기 활동을 적극해서 재원을 축적하겠습니다.

② 학교 교육시설 공간 부족

○ 대학 본부가 적극 나서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학생회관 및 학교 시설에 대하여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 재배치,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되어 온 공간 정리, 교육목적 이외에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교육 공간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설 전공 실습실 배정에 힘쓰겠습니다.

○ 학부교육에서 비대면/대면 강의를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써 강의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비대면 수업을 대학 전체 수업의 20%로 운영하도록 제한해왔으나 최근 이 제한을 풀어 대학이 자유롭게 비대면 강의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대학도 교양과목 일부, 전공별 강의 중 일부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③ 강의실 노후 문제

○ 2022년 2월 제출할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강의실 환경 개선 예산을 편성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질문 2] 인턴십 및 취·창업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방안

현재 우리 대학의 취·창업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덕성인턴’ 및 외부 인턴 프로그램, 전공 인턴십 등을 포함하여 취·창업 프로그램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 대학 관계자와 면담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학 일자리본부에서는 이번 3주기 대학평가에서 비교적 평가가 낮았던 학생 취·창업에 대하여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총장이 되면, 담당부서와 함께 총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퀄리티 높은 인턴십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전문성도 키워야 하는 만큼 전공교육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전공을 불문하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 본인은 특성화 발전계획 10대 과제 중 하나로 기업체 주문식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IT분야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해당 기업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종로온현캠퍼스 활용 계획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종로온현캠퍼스 활용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본인은 직접 종로온현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한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모교의 발전과 실현 가능한 종로온현캠퍼스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종로온현캠퍼스에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5층의 평생교육원 건물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1, 2층은 행정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래전에 약대 강의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1986년부터 운현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학부 학생들이 교육(교양수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지역이 건축법상 고도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제2캠퍼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적립금에서 건축비를 사용한다면, 대학 재정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 종로온현캠퍼스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본인은 평생교육원 건물의 일부 공간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첨단 시설이 구축된 환경에서 원격수업이나 자료검색 및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로이 종로운현캠퍼스에서 운현궁의 정취를 감상하면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전자 도서관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시설구축에 필요한 재정은 2022년에 시작될 자율혁신지원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학생들은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종로운현캠퍼스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4] 파견학생 프로그램 개선 방안

현재 우리대학의 파견학생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파견대학 프로그램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 본인의 후배들에 대한 공약 중 하나는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극 지원입니다. 한 학기 체류비(왕복 항공료, 기숙사비, 식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성적 우수자, 저소득층 학생들을 따로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외부 장학재단을 유치했으며, 2022년 2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점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자매대학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의 우수 대학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언어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해외 대학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서는 대외협력처입니다.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들이 해외 대학과의 교류에 필요한 업무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자매대학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질문 5] 홍보 활성화

우리 대학의 어떤 점을 강조여 대외적 홍보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와 더불어 우리 대학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본인은 덕성여대 졸업생으로서 우리 대학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만큼 우리 대학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동문 및 재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① 홍보 방향과 내용

○ 여자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오랜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캠퍼스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우수한 실력의 수험생들이 대학을 결정할 때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줄 수 없습니다.

○ 수험생들이나 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볼 때 미래 사회에 부응해서 발전하는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서의 평판이 높아야 합니다.

○ 본인의 비전은 ‘디지털 신기술 사회를 선도할 창의, 혁신 실무형 인재 육성 대학’입니다. 100년 역사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② 홍보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 많은 학생들이 이화여대나 숙명여대처럼 대학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와합니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교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대학을 적극 알리고, 수험생 및 학부모들을 대학에 초대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쉽게 홍보비를 교비에서 사용하면, 대학의 재정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대학마다 교육부에서 주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수주해서 충당합니다. 이 사업은 A형, B형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우리 대학은 과거 여러 이유로 인해 다른 대학보다 늦게 사업 수주를 시도했는데, 2년 전 대학본부와 입학처장 및 입학처 직원들의 노력으로 B형의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서 연 4억원 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입학처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A형 사업 수주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A형에 진입하면 교육부로부터 연 8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큰 대학처럼 전국의 고교를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고, 학교를 방문하는 수험생들에게 선물 키트도 나눠줄 수 있고, 더욱 적극적인 우리 대학 홍보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입학처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합시다.